

광주학생교육원,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교육' 주제 리더십 분야 전문가의 특강...95명 학생들 참여 전자바이올린 연주·성악 등 음악 공연도 구성

광주학생교육원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23일~11월11일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리더십 배양과정'은 학생들이 광주학생교육원 입소를 통해 진행되도록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으로 변경됐다.

교육 실시 전 감염병 예방교육, 거리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손 소독, 물품 및 장

비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주제로 리더십 분야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됐고, 총 4개 학교 9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교육원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특강과 더불어 전자바이올린 연주, 성악 등 음악 공연도 함께 구성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역할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음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던 이번 리더십 교육은 색다르고 신선했으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학생교육원 이경욱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리더십 배양과정'을 준비했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주인공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광양희망도서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

20개 기관 독서 취약계층 3천 여 명에 6개월간 봉사 실천

광양희망도서관의 '2020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이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50세 이상의 신중년이 주체가 되어 독서 취약계층을 찾아가 책 읽어주는 독서 봉사활동이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라남도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광양희망도서관은 올해 국비 2천7백만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 자원활동가, 독서지도 강사,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명의 책 읽어주는 봉사 활동가를 선정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활동가들은 매주 2인 1조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기관, 장애인기관 등 20개 기관, 독서 취약계층 3천여 명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서관과 참여 기관들의 잦은 임시휴관으로 문화봉사단 활동도 운영과 중단이 반복되었지만 활동가들은 직접 책 놀이 도구를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기관 이용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서도 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행복한 공감을 나눈 활동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재능기부를 통한 독서 봉사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광양희망도서관의 주수영(56세) 활동가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봉사 이야기를 쓴 수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목포여중, 사제동행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 운영

목포여자중학교(교장 오병희) 지난 11일 화북적 생활교육 평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사제동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소통과 협업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2학년 휴베이스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마음을 녹이고, 선생님 및 친구, 선배들과 사진을 찍으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간에 매일별로 한 학급씩 '추억

의 포토타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다음 주간에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2019년에 칭찬할 일, 2020년 버킷리스트를 염서에 작성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기로 했다.

이 날 크리스마스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노은비 미술교사는 "행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사제가 함께하는 학교교육활동을 기획해보아야겠다"고 말했다.

예산부터 프로그램까지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한 오병희 교장은 "코로나 19로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밝게 빛나는 트리처럼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광양백운초 불조심 어린이마당 전국대회 '2년 연속 수상'

전국 299개학급 6838명 응시하여 전국 10개 학급에게만 주어져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화재나 자연재해, 생활안전에 대한 관련 상식 문제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에서 광양시 중동소재 광양백운초등학교가 '안전지킴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및 10개의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하는 불조심 어린이마당 평가는 11월 19일 시험응시가 가능한 18명 이상의 초등학교 5학년 1개학급 단위나, 학급인원이 18명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한 팀으로 참가하여 화재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다.

이번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본선 평가 구분 없이 1회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국 299개학급 6,838명이 응시하여 전국 10개 학급에게만 주어지는 안전지킴이상을 전남 광양백운초등학교에서 수상했다.

안전지킴이상 수상자(학급)에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



며, 지도교사에게도 이사장상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